광주지방보훈청 문병민 청장 인터뷰

"청렴·친절로 시민들 신뢰 받겠다"

"보훈청을 찾은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다시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몸에 베인 친절이미지를 심어가겠습니다."

문병민(53) 광주지방보훈청장의 새해 다짐이다. 지난 16일 광주시 남구 주월동 청사에서 만난 문 청장은 유난히 '친절'을 강조했다. 문 청장은 새해 일성으로 "올해의 보훈 비전을 친절, 청렴, 창조라는 3대 모토에 담아 광주·전남지역 3만6천 보훈 가족에게 감동주고 신뢰받는 보훈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원서비스 행복한 만남으로

"직원들 스스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친절은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직원들이 민원인들에게 먼저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 민원 처리과정을 설명해주는 등 '친절한 보훈청' 이미지 심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 청장은 이같은 민원서비스를 '더 행복한 만남 서비스'로 불렀다. 이를 위해 광주보훈청에서는 민원인에게 담당 직원의 명함을 반드시 전달하도록 의무화했다. 차후 완벽한 민원 서비스를 위한 것이다. 또 보훈청 입구에 안내원도 배치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유공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깨끗한 보훈행정도 광주지방청의 주요 지향점이다. 문 청장은 다양한 클린 정책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도 강조했다. 교육과 실천을 통해 보훈청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문 청장은 "전 직원이 청렴서약을 한 후 제가 직접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실천 의지를 높이게끔 독려하고 있다"며 "청렴 학습 소모임도 발족해 업무상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사례나 대처 방법 등을 연구하는 한편, 일년내내 깨끗한 조직문화가 보훈청 내에 넘쳐 흐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소모임 등에 적극 참여하고 청렴 실적이 좋은 직원들에게는 연말 포상을 주는 '청백리 달성 마라톤 대회'를 열어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창조적인 보훈행정을 만드는 것도 문 청장의 올해 목표다.

"또 지난해 10월 정부의 혁신 10대 브랜드로 선정된 찾아가는 보훈 서비스인 '보비스'

유공자 존경받는 사회 만들 것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광주지방보훈청만의 특색사업인 '보훈가족을 사랑하는 모임'은 올해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 모임은 지난해 7월 식약청, 광주은행 등 광주지역 17개 기관 3천여명이 모여 만든 자원봉사모임이다.

문 청장은 "국가 차원에서 유공자를 우대하고 존경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보훈청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종교칼럼

이덕윤

얼굴은 그 사람의 정신사

새 해 시작과 더불어 불확실성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운세보기와 함께 겨울방학을 이용해 성형을 하고자 몰려든 이가 평소의 4배 육박했다는 뉴스다. 성형으로 관상을 바꾸고자 꿈을 꾸는지,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그 연령층이 아직 관상이 잡히지도 않은 어린 청소년들이라 하니 위험도가 이미 도를 넘었음이다. 성형이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게 해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한다는 긍정적 주장도 있지만 지나친 외모지상주의가 불러온 인간성 고갈의 사태로 보여진다. !

유명한 이탈리아의 조각가이며 건축가이고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1452~1519)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의 일화가 전해진다. 작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를 본 일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로마의 한 교회의 성가대원 '반디넬리'라는 청년의 아름다운 용모를 그렸다 한다.

그러나 더욱 어려운 것은 물욕에 마음을 주고 죄로 인하여 불안해하는 유다의 모델을 찾는 것이었단다. 10년을 유다의 모습을 찾아 헤매던 다빈치는 로마의 거리에서 한 남루한 차림의 거지를 만났는데, 어찌나 흉하고 섬뜩한 몰골인지 그를 유다의 모델로 그렸다고 한다. 그림을 다 그린 다음 돈을 지불하고 그의 이름을 물은 다빈치는 자신의 귀를 의심해야 했다고 한다. 그의 입에서 나온 그의 이름은 바로 '반디넬리', 10여 년 전 예수의 모델이었던 사람이었다. 관상은 심상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잘 생기고 못 생기고의 문제에 인생을 가두지 말자. 사람은 선천적으로 어떤 얼굴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얼굴은 분명히 타고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어느 정도 제 얼굴을 만들어 가는 능력을 가졌다. 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공들여야하는 것은 바로 제 얼굴을 스스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능력이다. 아무리 잘생긴 얼굴도 찡그리면 밉게 보이는 법이다. 얼굴에 너그럽고 부드럽고 선한 기운이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언제나 호감을 사게 된다. 성실의 정신으로 수십 년 살아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성실의 표정이 새겨지는 것이다.

따라서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서리는 곳이라 한다. 링컨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병욱 철학교수는 한국인의 얼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원불교의 정산종사를 지목했다. 얼굴에서 법문을 받들었음이다. 종교에 입문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얼굴 표정 하나에도 그 종교의 가르침이 묻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얼굴은 그 사람의 생활사이며 정신사라 할 수 있다. 원불교 경전에 "도인들은 형상 없는 마음에 중점을 두시나 범부들은 직접 현실에 나타나는 것만을 두렵게 아나니라"(정산종사 법어 원리편47장)말씀하셨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삽이 영원한 아름다움에 공들이는 지혜로움이길 바란다.

〈원불교 교무〉

'장애 극복상 수상자' 추천 하세요

올해의 장애 극복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해 '2008년도 올해의 장애 극복상 수상자'를 추천받는다.

후보자격은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해 타의 모범이 되는 장애인이며, 5명 내외의 수상자를 뽑아 메달과 함께 1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자 추천을 원하는 사람은 공적조서 및 공적개요서, 이력서, 사진, 경력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16개 시·도 사회과 또는 20개 장애인복지단체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문의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복지사업팀 (02-3433-0656, 3433-0640)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엠마우스 복지관, 장애아 돌보미 모집

광주엠마우스복지관은 오는 23일까지 장애아동가족의 아동 양육을 위한 '장애아 돌보미'를 모집한다. '장애아 돌보미'는 장애아동의 신변보호와 휴식 활동 지원, 사회활동을 위한 외출 지원, 개인 위생 및 건강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자격조건은 만 65세 이하의 건강한 성인. 특수교사, 재활·장애인 복지 관련 전공자는 우대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시급 6천원(교통비 별도 지급)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또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도 모집한다. 만 18세 미만의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아 및 중증 장애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어야 한다. 문의 062-524-7701.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주님도 믿음도 하나…교단 일치 화해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주간' 100주년 오늘 천주교 광주대교구청서 기도회의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등 교단이 교회 화해와 일치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주간'(18~25일)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다.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은 가톨릭과 개신교 등으로 분리된 그리스도교의 일치를 위한 세계적인 행사. 1908년 미국 뉴욕주 개리슨 시에 있던 '속죄회'의 공동설립자인 성공회 폴 오트슨 신부가 주창해 1908년 1월 18~25일 처음 실시됐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18일 오후 7시 대전 보문 감리교회에서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한 기도회'(이하 일치기도회)를 개최한다.

이번 일치기도회의 주제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로 사도 바오로가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채택됐다.

한국천주교와 KNCC 측은 이 구절에 대해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삶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일치를 드러내고자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19일 오전 11시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회의실에서는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한 기도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천주교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 위원장 김희중 주교(천주교 광주대교구 총대리주교)는 기도주간을 앞두고 발표한 담화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일치는 분열의 책임이 어디 있는지 서로 따지는데 있지 않고,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임을 고백하며 성령께 의탁하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매년 1월 18~25일로 정해져 있는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주간'을 맞아 한국교회는 1965년부터 대한성공회와 한국천주교가 서로 방문해 기도회를 개최했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 합동기도회가 열리는 것은 2006년 광주, 2007년 청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지난 2006년 광주대교구에서 열린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 모습.

〈천주교 광주대교구 제공〉

성격 장애·감정 표현 상담 심리학 강의

성격 장애 등 대인관계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심리학 강의가 마련됐다.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스님)는 오는 3월말(매주 월요일 오전 11시30분)까지 광주심리상담 연구소 윤관현 소장을 초청해 상담심리학 강의를 연다.

모두 12차례에 걸쳐 열리는 이번 강의에서는 감정표현능력 등 개인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등을 지도한다. 문의는 062-223-3168.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